

남북관광 재개되어야 한다



김 영 운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클린턴 전 미대통령의 방북을 시발로 북한을 둘러싸고 세계는 다시 대화의 단서를 찾고 있다. 모양새는 아직도 대북 제재에 힘이 실려 있는 것 같이 보이기는 하나, 북핵 문제를 해결을 위한 대화도 이루어지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양상이다. 곧 중국의 대북 대화가 예견되는 가운데, 당장은 아니지만 북미 간의 양자대화 또는 범위를 넓힌 다자간의 대화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도 따지고 보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전제로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남북관계에서도 해빙의 무드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이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루어진 것은 남북 간에 이미 대화에 바탕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준공식에 20명의 참가단 방북을 승인한 것과 9억 원에 상당하는 200명 수요 규모의 개성공단 탁아소 건설도 냉각된 남북관계를 녹이는 작업이다.

대남 대화를 시도하는 북한의 모습은 더욱 뚜렷하다. 현정은 회장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 개성공단 근로자의 석방과 김대중 대통령 서거 조문사절단의 청와대 방문, 연안호 송환조치와 같은 북한의 유화적 태도는 지난 8월 중순부터 남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는 비난을 중단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졌다. 특사조문단 방남 이후 남한의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등 대남관련 보도가 달라지고 있는가 하면, 북한 매체는 더 나아가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시대의 절박한 요구"라고까지 언급하고 있다(통일신보, 2009.8.29).

북·미관계가 유화적인 분위기로 돌아서 일단 대화가 시작되면 남북관계도 개선될 수밖에 없다. 한미공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로서 계속 긴장된 대북관계를 취하고 있는 것은 서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는 분야로 가장 중요한 형태는 다름 아닌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사업이다. 개성공단사업 만큼이나 중요한 사업이다. 당장 재개한다고 해도 별 다른 어려움이 없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질적인 이유는 대북 제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핵문제를 풀기위해 북한을 압박해야 하는 상황인데,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정부의 입장이 우습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가 바뀐다는 인상과 함께 일관성 있는 대북 메시지 전달에도 부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금강산과 개성관광 사업은 정치적인 측면을 떠나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북핵문제 해결이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인데 그 때까지 계속 이대로만 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엔 금강산과 개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기 때문이다.

금강산과 개성은 북한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다. 얼어붙은 북녘을, 못사는 그들의 모습을 충분하지는 않지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자 학습장이다. 비무장지대를 가로질러 마주치는 휴전선으로부터 군사적 긴장과 분단이라는 물리적 단절을 느끼게 된다. 그리곤 거의 반사적으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단어를 떠올린다. 진정한 통일이 마음의 통합에 있다면, 통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지를 생각하게 해 주는 것이 개성이요 금강산이다. 감추려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금강산과 개성은 민족을 잇는 소중한 현실적 통로다. 그 통로를 통해 북한의 변화까지도 감지하게 된다. 그들이 군항시설을 옹기고,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한 것은 아무리 돈 때문이라고 하나, 변화하려는 큰 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인

지하게 된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산교육인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관광은 북한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남한 주민을 위해 더 필요하다. 우리 주위엔 금강산과 개성을 가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사계절 변하는 금강산의 모습을 사진에 담고 싶어 사람들도 허다하고, 비로봉을 바라보며 온천을 즐기려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민간단체는 금강산에서 북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을 변화를 확인한다. 그 곳엔 이산가족 상봉이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면회소가 번듯하게 자리 잡고 있다. 주민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개성은 그야말로 북한의 실체를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남한 주민들이 개성과 금강산에 간다고 북한에 돈을 퍼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해다. 대부분의 돈이 우리를 위해 사용된다. 가서 잠자고, 먹고 마시고, 공연을 보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다. 다시 말해 댕가에 대한 지불이다. 금강산을 '조치'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는 반대급부다. 대부분의 돈이 남한 사람의 수중에 머문다. 금강산 관광 때문에 북한에 주는 돈이란 소위 '입산료'가 전부다. 비자 비용이나 마찬가지로. 그런데도 금강산과 개성에 가서 지출하는 돈이 모두 북한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북한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그래서 그 어떤 형태의 이익이라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경도된 생각 때문일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관광을 위해 지불하는 현금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에서도 비껴나 있다.

남북관광으로 생계를 잇는 남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금강산과 개성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현대아산 직원들은 차치하더라도 금강산 현지 투자자들은 현재 넋을 놓고 있다. 여행사 대리점이나 금강산으로 사람들을 실어 날랐던 버스회사, 속초나 고성군 지역 숙박업체, 음식점, 주유소, 기념품점 등은 그저 금강산 관광만 바라보고 생계를 이어 갔었다. 금강산으로 자재를 납품했던 업체만 해도 백수십여 개가 넘었다. 그것이 중단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제는 그들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남북관계가 해빙의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금강산관광과 개성관광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박왕자 씨 피격사건에 대한 남북 간의 양해가 보다 더 뚜렷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물론, 북한이 이미 본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현정은 회장의 최근 방북을 통해 재발방지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문제는 그것이 정부에 대한 공식적인 태도 표명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우리 정부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마음이 있었다면, 핵문제와는 별도로 북한에게 계속해서 피격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 간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점증해질 것이다. 미·북간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더 성숙해지기 전에 남북관계 개선을 우리가 주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북한과의 물밑 대화나 당국자 간 공식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북한이 피격사건에 대한 유감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대북 제재와 비핵문제 때문에 남북관광 사업재개에 계속 주저하기보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강산 관광사업 주체인 현대아산도 관광객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만만의 예방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 개성관광 재개는 시간문제다.

▶ 메일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뜻을 받들어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일운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홍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T. 02) 3673-3825 F. 02) 3673-3828 <http://uni.yka.or.kr> uniyka@paran.com